민주 텃밭에 거센 '통합진보 바람'

광주·전남 출마 후보들 10~40%대 지지율

당 지지율도 급상승 … 민주 아성 허물 기세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텃밭인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통합진보당의 '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다.

통합 이후 정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다 광주·전남지역 19곳 선거구 중 15곳에 출마한 후보들도 10~2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며 과거 총선과 달리 '바람몰이'를 하고 있어 20여 년 간 이어온 민주통합당 아성을 허물지 주목된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광주 8개 선거구에 모든 후보를 냈고, 전남에서는 11개 선거구 중 7곳의 선거구에 후보를 출마시키는 등 광주·전남에서 총 1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전국 지역구 후보 47명 중 32%에 해당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와 전남지역 후보 숫자가 가장 많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경기 7명, 경남 6명, 경북과 전북 각 5명, 울산 4명, 서울 3명, 부산과 대구, 충남에서 각 2명씩의 후보를 출마시켰다.

역대 총선에서도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17대 총선에서 광주에 4명의 후보를 냈고, 18대 총선에는 5명의 후보밖에 출마시키지 못했다. 이들은 각각 10%대의 득표율을 올리며 민주당의 벽을 허물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통합진보당의 바람이 사뭇 매섭다.

지난 1월 광주일보 여론조사에서 통합진보당 지지율은 4.2%에 그쳤지만, 지난 24~25일 진행한 광주일보 여론조사에서는 9.4%(광주 11.6%, 전남 7.8%)의 지지율을 얻으며 2배 이상 상승했다.

통합진보당 각 후보들의 지지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광주일보 여론조사에서 광주지역 8명 후보 중 서구 갑 선거구 정 호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두자릿수 지지율을 보였고, 특히 남구와 광산구 갑, 광산구 을 3곳은 20%의 지지율을 넘는 등 기염을 토하고 있다.

전남에서도 7명의 후보가 모두 두자릿수 지지율을 얻고 있고, 이 중 순천·곡성 선거구의 김선동 후보는 41.5%의 지지율을 얻으며 민주통합당 노관규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구례의 유현주 후보도 23.2%의 지지율로 2위를 달리고 있다.

이처럼 각 선거구에 후보들이 대거 출마하고, 지지율이 상승한 배경에는 10여 년 동안 다져놓은 정당 조직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 변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일당독점에 거부감을 느낀 민심을 통합진보당이 많이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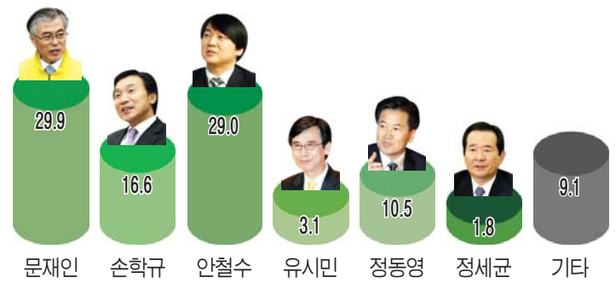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재인 29.9%·안철수 29.0%

광주일보 여론조사

야권 대선후보 대결

■제18대 대선(야권후보) 가상대결 (단위:%)



광주·전남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제18대 대통령 선거 야권 후보 가상대결조사에서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와 KBC 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뷰'에 의뢰해 지난 24일과 25일 광주·전남지역 유권자 1만9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문재인 이사장이 29.9%의 지지율로, 안철수 원장(29.0%)을 0.9%포인트 차이로 따돌리며 선두를 차지했다.

이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16.6%) ▲정동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10.5%)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3.1%) ▲정세균 전 민주당 최고위원(1.8%) 순이었다. 무응답은 9.1%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문 이사장이 33.7%의 지지율을 얻어 안 교수(28.8%)를 앞질렀지만, 전남에서는 안 교수가 29.2%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문 이사장(27.2%)을 제쳤다.

손 전 대표는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15.3%, 17.6%의 지지율을 얻었고, 정동영 전 최고위원은 광주에서 9.8%, 전남에서 11.0%의 지지를 받았다. 유 대표는 광주와 전남에서 3.5%와 2.8%를, 정세균 전 최고위원은 1.6%, 1.9%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

연령별로는 문 이사장이 19세·20대(35.2%), 30대(38.1%), 40대(33.9%)에서 30% 이상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고, 안 교수는 50대(31.8%)와 60대(26.2%)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다.

손 전 대표는 60세 이상에서 24.0%의 지지율을 얻어 문 이사장을 앞질렀지만, 다른 연령층에서는 10%대 지지율에 그쳤다. 정동영 전 최고위원은 50대(11.8%)와 60대(14.6%)에서 10% 이상의 지지를 받았지만, 다른 연령층에서는 한 자릿수 지지율밖에 얻지 못했다.

유 대표와 정세균 전 최고위원은 모든 연령층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ARS(RDD·전화임의걸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7%포인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통합진보당 후보들 '광주를 바꾸는 8가지 약속' 발표

통합진보당 광주지역 4·11 총선 후보들이 28일 지역 총선 공약인 '광주를 바꾸는 8가지 약속'과 공약이행을 위한 3대 원칙을 내놓았다.

통합진보당 광주지역 후보 8명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역 18대 국회의원의 공약이행 완료도는 27.67%에 불과하다"며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광주지역 총선 후보들은 공약발표에 앞서 공약이행을 위한 3대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밝힌 3대 원칙은 ▲매년 공약이행 점검표 공개 ▲공청회와 분기별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 등을 열어 시민의 눈에 맞춘 정책 입안 ▲광주지역 공약, 중앙차원 지원 실행 등이다.

광주지역 주요 공약인 '광주를 바꾸는 8가지 약속'도 공개했다. ▲지방대학육성 특별법 제정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사회적 기업육성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 지원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광주은행의 시민은행 전환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정책 ▲한미FTA 폐기 등이 그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방대학육성 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인재 육성 및 지방대 출신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약에는 광주지역 임대 주택 비율을 최고 20%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연령별 수요에 따른 공급유형 다양화 등이 포함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지원을 위해 공교육을 통한 문화예술 시민교육 실시와 문화예술 동호회 육성, 지역별 작은 문화예술 공간 신설, 문화예술인 창작지원을 위한 실업급여 지원 등을 약속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잘 보고 잘 찍자"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28일 광주 동구청 앞에서 '광주·전남 여성유권자행동' 발대식을 열고 '개념찬 여성 유권자, 잘 보고 잘 찍어요'라는 주제의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 무려 31.2㎝

20개 정당 표기…역대 최장

4·11 총선에 사용되는 비례대표 투표 용지의 길이가 역대 최장인 31.2㎝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1번 새누리당부터 20번 한나라당까지 모두 20개 정당이 표기돼 그 길이가 역대 최장이 됐다.

이는 지난 2004년 정당법을 개정, 정당 성립요건 중 '지구당 규정'이 폐지되는 등 정당 창립을 위한 '진입장벽'이 완화되면서 선거 직전 20개 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성 정치권의 변화를 유도하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선거철에만 난립하는 과도한 숫자의 정당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도 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비례대표 개표엔 전자개표기 가동률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전자개표기는 모두 1861대로 이 가운데 31.2㎝ 크기의 투표 용지를 개표할 수 있는 개표기는 484대에 불과하다. 나머지 1377대는 비례대표 개표에 사용할 수 없다. 수작업 개표가 불가피한 것이다. 때문에 비례대표 투표 결과는 총선 다음날인 4월12일 오전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